

죽산 뉴우스

15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 12월 16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



(설동섭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회장)

제 15 차 가축질병 예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안양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설동섭 가축질병예찰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제 14 차 예찰협의회 결과 조치사항과 법정 전염병 발생 실태, 예찰대상농가 예찰결과, 가축질병예찰 통보수, 예방약, 수급현황, 가축질병 흥보실시 및 계획, 도입우질병 진료교육 및 지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협의사항에서는 84년 지역예찰사업소 예산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애로를 느끼나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결의를 밝히고, 도입우질병 순회진료, 예방약 보관용 냉장고 설치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밖에 겨울철 가축 질병 예방에 대한 농민교육, 질병발생 현황, 흥보체계 확립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예찰협의회 조치사항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치 사항

- 1) 가축질병 방역 강화
- 돈콜레라 방역기간 : 11~12월 (2개월간) 각시도 기동방역 반 운용
- 돈콜레라 주의보 발령 : 83. 10. 17~18일 (TV, 라디오)
- 돈콜레라 발생주의보 발령후 농민의 방역의식 고조
- 2) 예방약 보관용 냉장실 설치
- 각시도 예방약 보관용 냉장실 설치 예산을 지방비에서 확보토록 조치
- 3)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 면역원성 검토
- 각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한 면역원성 재 검토 (계획중)
- 4) 가축전염병 발생통보 강화
-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농과대학 법정 전염병 발생통보 이행촉구
- 5) 도입우 질병방제 대책
- 각시도별 순회진료반 운용강화

◎ 보고 사항

- 1) 법정 전염병 발생실태 (닭질병, 5~10월)
- 2) 닭질병별 병성감정 실적 (1~11월)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시 도	발생건수	발생수수	폐사수수	비 고
강 원	1	1,000	60	
전 북	3	870	304	
계	4	1,870	364	

○전염성 후두기관염(ILT)

시 도	발생건수	발생수수	폐사수수	비 고
경 기	1	25,600	10,150	양 주
부 산	1	-	-	양 산
구	2	25,600	10,150	

○추백리

시 도	발생건수	발생수수	폐사수수	비 고
충 남	1	23	23	천 안

2) 닭질병별 병성감정 실적(1~11월)

비고	질 병 명	건 수	비율 (%)
전 염	전염성 후두기관염	30	12.1
	뉴 캇 슬 병	4	1.6
	닭 뇌 척 수 염	12	4.9
	마 렉 크 병	16	6.5
	감 보 로 병	8	3.2
	산란저하증후군 '76	13	5.3
	계 두	6	2.4
	백 혈 병	10	4.2
	난 황 염	3	1.2
	마이코플라즈마병	48	19.4
성	추 백 리 병	3	1.2
	포 도 상 구균 증	13	5.3
	대 장 균 증	31	12.6
	코 라 이 자	2	0.8
	살 모 넬 라 증	2	0.8
	콕 시 듐 증	21	8.5

금 광 이 성 폐 염	3	1.2
전 염 성 빈 혈 증	1	0.4
회 총 증	1	0.4
기 타	20	8.1
소 계	247	75.8
지 방 간 증 후 군	7	8.9
뇌 연 화 증	3	3.8
비 타 민 결 핍 증	9	11.4
카 타 르 성 장 염	1	1.3
비 특 이 성 장 염	3	3.8
뇨 산 침 칙 증	5	6.3
근 위 부 식 증	1	1.3
중 독 증	1	1.3
복 막 염	3	3.8
파 양 성 장 염	1	1.3
기 타	45	57
소 계	79	24.2
합 계	326	100

대형도계장 대정식품 준공식

-금산에 국내 처음으로 가공시설 갖춰-



계 육가공공장이 금산에 세워져 양축가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계육가공시대의 장

을 연 대정식품(대표 이현정)계육 가공 공장은 총 21억원(기계설비자금 5억 5천만원)을 들여 1,500평의 대지위에 건평 640평 규모로 세워졌으며, 1일 6만수(시간당 4,000수)의 도계능력과 1일 계육제품 7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초현대식 전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봉순 금산군수 등 기관장, 양축가, 대정식품 임직원, 마을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새 출범을 축하해 주었다.

이현정사장은 기념식사에서 「닭고기의 선진 가공기술 연구와 유통개선, 농민의 소득증대와 질 좋은 식육유통에 이바지하고자 본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디제이치킨, 삼계탕, 통조림, 치킨스테이크 등 더욱 다양하고 맛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닭고기 소비에 새 바람을 일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산군수, 보석사주지의 내빈축사에 이어 이 사장은 동공장이 준공되기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정진국(오진양행)사장 등 1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동사 홍용남 상무 등 3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개막테이프를 끊은 참석자들은 도계 및 가공시설 내외부를 돌아보았으며, 직접 생산돼 나오는 고로케를 시작해 보기도 했다.

대정식품에서는 이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서 지난 81년 계획에 착수하여, 일본, 네델란드, 스웨덴 등 선진시설을 시찰·협의하는 등 각적인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에 도입된 시설은 네델란드 STORK사와 KOPPENS사, 스웨덴의 PALMIA사 제품으로 위생도제시설은 물론 육가공시설과 컴퓨터시스템을 설비하고 있다.

이번 가공공장이 설립됨으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꺼려온 비위생적인 불량제품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요리 개발을 통해서 올림픽 등 선진국으로 향한 우리 식생활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협, 은행업무 본격 돌입

- 전국 각도지부에 영업망 확충 예정 -

작년 6월 전국 29개조합에서 상호금융 업무 취급을 시작한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는 지난 12월에 영업점포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은행업무에 돌입했다.

축협은 그동안 도시의 여유자금을 흡수, 양축농가의 자금지원 및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은행업무 취급 준비를 서둘러 왔었다.

지난 80년 12월에는 축협법이 제정되어 은행업무 취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82년 12월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협이 은행업무 취급기관으로 규정되었고, 83년 6월에는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영업소 신설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축협은 외환업무를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는데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종합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각종 대출업무 등이 포함되며, 금리도 예금 8%, 대출 10%로 은행과 똑같이 적용된다.

앞으로 전국 각도에 영업점포망을 확장시킬 예정이어서 양축가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바이엘화학 '83 극기훈련

- 일산 YMCA 캠프장서 2박 3일간 -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은 '83년의 성공적인 발전에 이어 '84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다지기 위하여 '83 극기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2월 8일부터 2박 3일간 일산소재 YMCA 캠프장에서 실시된 이번 '83 극기훈련은 초청연사 강연과 영업성과 분석 및 분임조



△ 한국바이엘은 사원들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발전과 회사발전을 모색키 위해 '83 극기훈련을 실시하였다.

회의를 통한 회사발전의 모색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하여 사원들의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극기정신을 함양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마지막날에는 악천후 극복과 극기 정신 발휘를 위한 30km 단합행군과 북한산 등반대회에 전원이 참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농축수협 조합장 총대 직선제로

농·축·수협 단위조합장 선출제도가 84년부터는 총대(總代)에 의한 직접선출제로 바뀌게 되었다.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축·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절충작업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리·동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총대가 9인의 전형위원을 뽑은 후 이들이 2명의 단위조합장 후보를 선출, 다시 이들중 1명을 조합중앙회장이 임명하는 2중간선제를 채택하던 것을 바꾸어 전형위원 선출과정을 삭제, 총대가 2명의 후보를 선출하고 이중 1명을 중앙회장이 바로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미 대두생산량 4천 182만톤 추정

- 83년 10월 예상치보다 약간 높아 -

미국의 83년도 대두생산량은 지난 10월에 예상했던 감소치보다는 약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농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대두 예상생산량은 10월에 상량보다 54만톤이 증가한 4천 1백 82톤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생산량 예상치가 증가한 이유는 대두 주산지인 일리노이주와 아이오와주에서의 에이커당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 전역의 평균 단당소출량은 에이커당 0.3부셸이 늘어난 25부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미농무성은 대두 예상생산량 증가에 따른 대두제품의 예상수요·공급량을 조정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두(1백만 부셸)

	1983~84		1982~83	
	11월	10월	11월	10월
공 급				
파 종 면 적	63.3	63.3	71.5	71.5
수 확 면 적	61.4	61.4	69.8	69.8
단 당 수 확 량	25.0	24.7	31.9	31.9
년 초 재 고	387	387	266	266
생 산 량	1,537	1,517	2,230	2,230
총 공 급	1,924	1,904	2,496	2,496
소 비				
가 공	975	975	1,108	1,108
수 출	720	720	905	905
씨 앗 / 사료	73	73	61	61
총 소 비	16	16	35	35
비 축	1,784	1,784	2,109	2,109
년 도 말 재 고	140	120	387	387

대두박(1,000쇼트톤)

	1983~84		1982~83	
	11월	10월	11월	10월
공 급				
년 초 재고	474	375	175	175
생 산	23,111	23,255	26,714	26,700
총 공 급	23,585	23,630	26,889	26,875
소 비				
국 내 소비	17,750	17,750	19,306	19,450
수 출	5,650	5,700	7,109	7,050
총 소비	23,400	23,450	26,415	26,500
년도 말 재고	185	180	474	375

대두유(1백만파운드)

	1982~83		1983~84	
	11월	10월	11월	10월
공 급				
년 초 재고	1,261	1,370	1,103	1,103
생 산	10,614	10,625	12,041	12,017
총 공 급	11,875	11,995	13,144	13,120
소 비				
국 내 소비	9,750	9,750	9,858	9,850
수 출	1,350	1,450	2,025	1,900
총 소비	11,100	11,200	11,883	11,750
년도 말 재고	775	795	1,261	1,370

올해부터 보리소주·보리사료 나와

-배합사료가격 상승요인 돼-

정부는 올부터 보리를 소주원료인 주정용으로 사용키로 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해 가축사료로도 이용키로 했다.

농수산부와 국세청에 의하면 정부가 보리전량을 수매하게 됨에 따라 창고재고량이 83년 말 현재 3백 59만 섬, 84년 말에는 4백 50만 섬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량으로 소비되고

남는 재고량 중에서 우선 주정용으로 47만 8천 섬, 가축사료용으로 80만 섬 등 모두 1백 50만 섬을 비식량용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주정생산량 83만 5천 드럼 중 17.2%인 14만 4천 드럼은 국산고구마로 생산하고 82.8%인 69만 1천 드럼은 타피오카, 당밀 등 수입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했는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밸효주정용 수입원료의 20%가 국산보리로 대체되게 되었으며 오는 88년까지는 주정원료가 100% 국산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의 효과로 올해 총 3백 9억 원의 외화절약과 1백 53억 원의 양특적자 해소가 기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정원료와 사료의 보리대체로 원가상승에 의한 소주와 배합사료의 가격상승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대두박 수요 안정세 예상

미국의 84년도 1/4분기 대두박 수요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대두협회(ASA) 수석경제분석역인 액턴박사에 의하면 작년 말의 돼지 사육두수 감축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수요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액턴박사는 농민들이 곡물 판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주간 대두가공 및 수출물량

주간 가공 및 수출물량이 90만 메트릭톤 이상이면 대두가격은 강세, 그 이하면 약세요인이 된다.

• 달러화 시세

달러화가 올해 봄 사이에 10~15% 하락한다면 해외 대두수입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대두가격은 상승요인이 된다. 반대로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하면 하락 요인이 된다.

• 국제교역정세

현재 미국과 EC 지역 간의 교역 마찰 및 지난 번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둘러싼 미·소 간의 대립 등 국제교역정세의 악화는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된다.

• 대두보유 농가들의 대두판매상황

현재 미국 대두 경작농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욱 오르리라는 기대 속에서 판매하는 대신 관망하고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관망자세는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에 판매 물량이 몰리게 됨으로써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맥의 사료이용

작년 대비 40% 증가 예상

- 소맥가격, 사료곡물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 -

최근 미국내 소맥은 채고과다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톤당 \$130까지 하락, 사료곡물 수준에 육박하게 되자 사료로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의 소맥의 사료이용량은 작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SDA 자료에 의하면 1983/84 소맥가격이 135불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료이용 소맥은 1,000만톤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1943년의 기록적인 1,411만톤 이용 이후 최고의 수량일 것이라 한다. 한편 1983/84년도 사료용 옥수수 이용량은 1억 2,00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1970년 이후 미국의 소맥 수급상황인 바 최근 들어 사료로 사용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소맥수급상황, 197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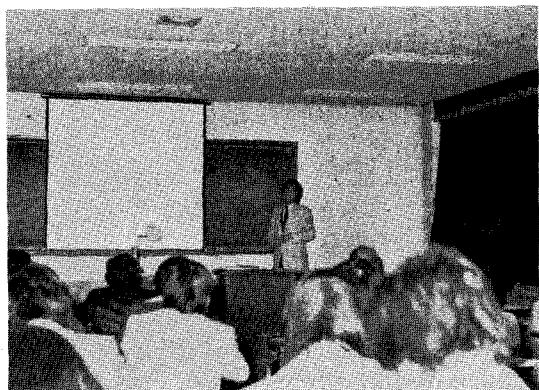
(단위 : 1,000M/T)

	생 산	수 출	국내소비 (사료용)	연 말재고
70 / 71	36,795	20,166	21,010 (5,252)	22,398
71 / 72	44,072	16,601	23,378 (7,130)	26,752
72 / 73	42,085	30,889	21,745 (5,579)	16,247
73 / 74	46,565	33,121	20,520 (3,782)	9,253
74 / 75	48,498	29,420	18,288 (1,061)	12,328
75 / 76	57,887	31,923	19,731 (1,006)	18,125
76 / 77	58,919	25,854	20,547 (2,041)	30,290
77 / 78	55,683	30,590	23,378 (5,225)	32,059
78 / 79	48,334	32,495	25,528 (4,327)	25,147
79 / 80	58,080	37,422	21,311 (2,341)	24,549
80 / 81	64,618	41,204	21,129 (1,388)	26,916
81 / 82	76,169	48,253	23,242 (3,865)	31,672
82 / 83	76,441	41,127	25,245 (5,879)	41,931
83 / 84*	65,524	38,100	27,879 (10,000)	41,558

* 추정치임

축산분야 활용 컴퓨터세미나

- 실제 컴퓨터 작동시범, 고대 축산과 -



「축산분야에의 컴퓨터의 활용」에 관한 세미나가 고대 축산과 주최로 지난 12월 15·16 양 일간 고려대 과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KAIST 전산개발실에서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특히 사료업체 관계자가 다수 참석,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밖에도 동물약품업체, 양축가, 학생 등이 참가하여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첫날 강사로 나선 김원경(KAIST 연구원)씨는 컴퓨터의 요소, 구조, 기능, 특성, 효과, 언어 등 컴퓨터 일반에 관하여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했으며, 컴퓨터와의 차이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정영근(KAIST 연구원)씨는 「축산에서의 컴퓨터의 응용」이라는 제하에 전산화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산화도입의 전제조건으로서 △ 컴퓨터 활용을 위한 전문지식 및 전문요원의 확보, △ 담당 실무부서와 전산 업무 담당기구와의 원활한 협조, △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 개발, △ 최고경영층의 전산화 수 행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 전산화 대상업무는 기업의 내·외부를 종망라 하는데, 축산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판매 재고, 재무회계 외에 농장관리, 부화장관리, 육종업무 등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미나 이틀째인 16일에는 먼저 김창현(KAIST 연구원)씨의 「マイクロ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 컴퓨터의 변천과정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chip, board 등 용어 설명도 곁들였다. 또 마이크로 컴퓨터의 선정, 응용의 실제 등에 관한 설명을 마친 후 퍼스널컴퓨터(personal computer)를 실제로 작동, 거래처 명부를 작성해 보였다.

「사료배합비율표 작성」에 대해 강의한 김영남(KAIST 연구원)씨는 손으로 산출한 사료배합표와 컴퓨터로 산출해 낸 결과가 일치함을 밝히면서 컴퓨터의 신속 정확한 처리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료배합표 작성과정이 너무 복잡

했던 관계로 참가자들은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결과로 미루어 우리 축산업계에도 컴퓨터시대가 오고 있음을 생각해 하였다. 본지는 지난해 11월호부터 기초 컴퓨터 강좌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

천호그룹 창립 2 주년 기념식 -계열회사 임직원 150여명 참석-



천호그룹(대표 이계조) 창립 2 주년 기념식이 지난 12월 30일(금) 오후 4시에 신관 5층 회의실에서 계열회사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팔열 총무부장(천호부화장)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사훈제창(오경록 상무)에 이은 경과보고에서 김영환(마니육종) 사장은 「천호부화장, 마니육종, 천호통신, 천호기계, 천호컴퓨터의 모든 임직원은 현신적인 희생과 성의있는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어 흑자로 이끄는데 성공했다」고 치하하고 다가오는 84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천호그룹의 무궁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도법사원 표창에서 김영환(마니육종) 사장 표창에 김철희기사(서원농장)와 5명이 수상했고,

천호부화장 이계육사장 표창에는 김종운 기사보(유교농장) 외 14명이, 천호그룹 이계조회장 표창에는 김호섭부장(마니육종 영업부) 외 10명이 상장 및 부상을 받았다.

이계조회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운 여건의 축산업을 이겨내는데 천호가족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직장을 내 가정, 내 형제처럼 동거 동락하는 자세만이 어려운 84년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칵테일 파티로 자축연을 가졌다.

대두유를 이용한 바구미 구제

- 미농무성 버크홀더 박사 연구 -

곡물저장시 발생하는 벌레를 구제하는데 대두유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이 미농무성에 비롯한 관련 연구소에서 진행중이다.

미농무성의 버크홀더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연구중인 방법은 대두유를 사용하여 곡물저장시 발생하는 바구미 등의 벌레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곡물저장시 생기는 먼지를 가라앉혀 출뿐 아니라 농약 등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안전성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버크홀더 박사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그는 또한 대두유를 사용하여 곡물에 발생하는 벌레를 구제할 때 드는 비용도 여타 농약 등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저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의 시험결과에 의하면 곡물창고의 먼지를 가라 앉히는데 필요한 양인 곡물 1kg당 7.5ml의 대두유를 살포하였을 때 곡물안에 있는 바구미의 60%가 곡물로부터 기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곡물 1kg당 10ml의 대두유를 살포하였

을 때는 바구미의 67%가 죽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벌레들이 다시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시험결과를 발표하였다.

돈분발효사료 이용 증가

- 원가 20% 절감 효과 거둬 -

양돈불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양돈생산자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무척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업체에 따르면 돈분발효사료를 사용하면 20%의 원가절감을 거둘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양돈농가의 인식이 날로 늘어 돈분이용율이 차츰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돈분발효사료를 모돈에게도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급이할 수 있어 원가절감 효과가 크다고 한다.

축산물 불량품처리 규정 신설

정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불량품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 12월 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이 개정령에 따르면 암수, 수거된 불량 축산물을 소각 또는 매몰하되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밀도살 등을 신고·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했을 때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다.

수입쇠고기 판매가 인상

- 정육가격 600g에 3천 5백원 -

농수산부는 최근 돼지고기값이 과잉생산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는 등 불황이 심화되자 돈육

소비증대를 위한 일환책으로 수입쇠고기 소비자 정육가격을 9.4% 상승된 3천 5백원으로 인상,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지고기는 600g 3천 2백70원, 갈비는 2천 8백20원으로 인상했으며, 포장육과 원료육 공급가격도 3천 6백77원, 4천 7백 45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맥도날드사 닭고기 맥너겟 개발

세계적 인스턴트 식품업체인 맥도날드사는 최근 닭고기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를 새로 개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닭고기 Mc Nuggets」으로 명명한 이 햄버거는 9~20쪽을 포장해서 판매에 들어간 결과 2개월만에 주당 200만수 상당의 브로일러가 소비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McDonald社는 작년 10월 미국 브로일러협회(National Broiler Council) 연차대회에서 이와 같은 닭고기의 이용도개발을 알리면서, 브로일러 생산자의 사육기술 개선과 도계가공 업체의 기계발달 및 채육취율 제고에 의한 품질향상과 원료비 절감대책을 촉구했다. 또 McDonald 사는 닭고기의 영양과 가격면의 유리성으로 보아금후 즉석식품체인을 통한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도 깃털감별 증가

미국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 감별사들이 협회에 카드를 보내왔다.

그곳 감별사들은 육용계를 감별해서 솟悩み로스터로 크게 길려 철면조시장을 참식해서 성공하였는데, 작년부터는 모두 깃털감별로 바뀌어 30명의 감별사가 일하던 곳에 12명의 감별사들이 깃털감별을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다.

유럽지역도 갈색계 수수가 증가해서 감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갈색계의 증가와 세이버, 하이라인 등 백색산란계도 깃털감별로 바뀌어가고 있어 PS와 일부닭에 만 항문감별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수축산신보 신년교례회

-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

농수축산신보(대표 한남석)는 한국낙농경영연구회(회장 김의수)의 후원으로 지난 1월 6일(금) 오후 6시 30분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농수축산인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였다.

김식 국회농수산분과 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계, 업계, 양축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한남석 사장(농수축산신보)은 「지난 한해는 축산이 매우 어려운 사정에서도 모든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유대관계로 극복해 왔다」고 강조하고 금년에도 가일층 업무협조로 불황을 타개하자고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교례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끝났다.



△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미국인, 식물성 유지방 선호

- 쇠고기 대신 닭고기, 계란 대신 과일·야채 -

현재 미국인들은 쇠고기를 덜 먹는 대신 닭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고, 계란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과일과 야채의 섭취를 늘려나가는 등 식생활 패턴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전에 비해 지방의 섭취량은 변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인들은 그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40%를 지방을 통해서 얻고 있는데, 이는 1인당 연간 소비량으로 볼 때 135파운드나 되는 양이다.

이처럼 지방전체의 섭취량은 10여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나 지방의 공급원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40년대에는 미국인이 섭취하는 지방중 가시지방(visible fats and oils)의 66%가 동물성 유지이던 것이 1960년대에는 50%로 감소되었고, 1971년에는 30%로 줄었다. 또 오늘날에는 가시지방 섭취량의 20%만을 동물 유치에 의존하고 있을뿐 나머지 80%는 대두유와 같은 식물성 지방으로부터 섭취하고 있다.

축산물가격 안정위해 노력

- 농기계 비료값 인상 안해,

朴농수산장관 -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84년 농정시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중점시책으로 식량자급과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들었다.

朴장관은 특히 그동안 증가일로에 있는 육류소비 추세에 부응키 위해 소·돼지 등 축산기반을 의욕적으로 다져왔는 바, 최근에는 사육수수가 급격히 증가돼 수급균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에는 과잉생산시 수매비축

을 하는 등 가격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한 축산기반을 다지기 위해 산지조지를 계속 확대 조성하는 외에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복합영농사업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朴농수산장관이 발표한 연두사의 중점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식량의 지속적 증산.

둘째,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확대.

세째, 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어촌건설의 기반 구축.

네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획기적인 확대

다섯째, 농수산물의 유통정비 본격추진.

돼지 16만두 수매

- 1월 10일부터 120억원 들여 -

농수산부는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1월 10일부터 1백20억원을 들여 16만두(정부 12만두, 민간업체 6만두)의 돼지를 수매키로 했다.

이번 수매는 20마리 미만의 영세 사육농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돼지파동을 막기 위해 임신돈을 대량으로 수매할 계획이다. 또 정부수매는 각시도와 축협이 맡아서 하며, 민간수매분은 육가공업체에서 맡겨 수매물량의 50%까지 용자지원키로 했

수매가격은 경영비의 90%선으로 다음과 같다.

△ 비육돈 80~90kg: 8만원(경영비 8만8천원)

△ 육성돈 4~5개월령: 5만9천원

△ 모돈 110~180kg: 산지거래가격

△ 임신돈: 모돈에 4만원 추가

양계농가 흑한 피해 커

- 교통난으로 닭고기값은 오히려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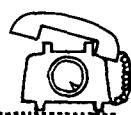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양계업계에 설상가상으로 한파까지 겹쳐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비닐하우스(파이프하우스)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은 양계생산자의 경우 1월초 강추위가 계속되자 계사내 온도가 5도 이하로 하락, 산란율이 크게 떨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계란의 보관 및 수송, 육계의 원활한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보온시설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폭설과 한파로 닭고기 유통이 어렵게 되자 닭고기값이 계속 올라 생산비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단신



○ 풍진화학<주> (대표 최 성강) : 12월 1일부로 사료부와 생산부에 신입사원 6명을 채용했다.

(사료부)

황 병욱 (서울대 농대 졸)

조 명남 (영남대 축산경영과 졸)

박 태봉 (전국대 사료과 졸)

윤 교진 (전국대 축산과 졸업예정)

전 상문 (영남대 축산과 졸업예정)

(생산부)

조 한우 (전국대 축산과 졸)

○ 아시아태평양축산학회 (회장 한 인규)

: 85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AAAP총회 참가 접수 결과 지난 11월 10일까지 25개국에서 338명이 사전등록을 마쳤다.

○ 유스틴 피씨, 녹스피드 생산: 바이엘 화학<주> (대표 김 길원)은 「유스틴-피씨」를 새로 개발, 선보이고 있다.



살리노마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스틴-피씨」는 비육우의 사료효율 개선과 고창증발생 억제에 높은 효과를 보이며, 돼지의 경우 성장촉진과 소화율 향상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동사는 닭·돼지의 복합성장촉진제 「녹스피드」를 개발·시판중이다. 이 제품은 육계와 돼지의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설사와 대장균감염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한축산약품 (대표 김 태영) : 축산수의약품을 취급해 오던 동사는 서초동에 대형 본점을 개설하고 12월 26일 개점식을 가졌다.

개점일: 1983년 12월 26일.

장소: 서울 강남구 서초 1동 1133(꽃마을)

전화: 584-4162

○ 과학시스템(대표 박 만후): 세계 최대의 스틸 사일로(Steel Silo) 제조 회사인 미국 G.S.I.(Grain System Incorporated)의 국내 공급원인 과학시스템은 이번 대두박 등 특수 박류 사일로(Silo)와 부두용 대형(585,000 부阡 용량까지) 사일로 제조의 세계적 메이커인 미국 피-바디 사일로(Peabody Silo)와 한국 총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료용 사일로는 물론 대형 꼬물 사일로 판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동사는 또한, 서독 Walter 회사의 펠렛 시스템과 사일로 제조 노-하우(Know how)도 도입하여 한국은 물론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전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일로(silo) 및 사료 제조시설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정 연태씨(전 천호통산 생산부장)를 영업부장으로 영입하였다.

○ 한일농원(대표 차 두홍): 국내 양계 산업의 계속적인 경기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동농원에서는 지난 11월 말 홍콩에 육용계(C.C) 5,000 수를 수출한데 이어 12월 26일 다시 3,600 수를 수출하였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아오던 아바이커종의 이 같은 수출은 물량체화시에도 물

량을 효과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농원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신용장이 내도하는 대로 계속 수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폭넓은 분야에서의 해외진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엘화학」 83 겨울호 발간: 양축가에게 각종 질병 정보와 정확한 동물약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바이엘 화학(주) 사보「바이엘화학」 겨울호가 나왔다.

이번 겨울호에는 '83년 축산업계 회고와 '84년 전망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으며, 축종별 겨울철 사양관리와 특히 문제되고 있는 도입우 호흡기 질병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사보바이엘 겨울호는 총 p.56로 구성되어 있으며, 2만부를 발간, 전국 양축가에게 무료로 우송하여 가축 질병 뇌치에 귀중한 봇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삼화약품(대표 장 병표): 지난 12월 27일부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변경전화: 713-2251 · 2

'83년도 3/4분기 공장별 위배사료 내역(배합사료)

(농수산부제공)

공장 소재지	공장명	사료명	위 배 사 항			행정처분		영업정지기간
			단백질부족	조회분초과	Ca부족	토사초과	경고	
서울	홍성사료	큰병아리		1.0			○	
	양주축협	산란초기		1.3			○	
	전국배합사료	종계		4.1			○	
인천	천호통산	산란초기		0.5			○	
경기	금성물산	산란증기	0.4				○	
전남	전양사료	산란초기			0.1		○	
	남양산업	종계		4.8		0.5	○	83.9.20~10.19
경북	진양사료	산란초기			0.3		○	

○ 한국계우회 정기총회: 동계우회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6시에 계우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임직원, 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날 총회는 식순에 따라 결산보고 및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계우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토의에 들어갔다.

또한 회칙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임원개선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자는 안, 입회비를 인하하자는 안, 임기를 2년으로 늘리자는안이 제기되었다. 이 결과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2분의 1 이상 참석·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되었으며, 입회비는 10만원에서 2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조정되었다.

한편 임원선출 결과 전 임원진이 유임되었다.

- 회장: 고태영
- 부회장: 한준·주병한
- 총무: 이종선
- 자문위원: 주원술·김종현



○ 이원화학(대표 오무웅): 업무의 조직강화와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조주연(전 이화약품 영업부장)씨를 12월 1일부로 영업부장으로 특채하였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입회

본회 입회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직도 입회하지 아니한 양계인은 이번 기회에 빠짐 없이 입회하여 양계산업 발전에 힘을 모읍시다. <회원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찬동하는 자로써 일반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

- 가. 부회원: 허가를 받아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
- 나. 종회원: 등록을 필하고 종계업을 경영하는 자.
- 다. 채란회원: 채란업을 경영하는 자.
- 라. 육회원: 육계업을 경영하는 자.
- 마. 감별회원: 초생후 감별사자격증 소지자.

2. 단체회원: 법인, 조합 및 기업양계업자 또는 양계단지(계우회 포함)

3. 특별회원: 닭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위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사람은 본회에 비치된 소정의 입회원서와 △ 일반회원은 입회비 2만원, 회비 2만원, △ 단체회원은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10만원, △ 특별회원은 입회비 2만원, 회비 1만원을 납부하시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가 됩니다.

1984. 1.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 장원통신(대표 홍순): 지난 11월 28일부로 농축산용 냉동기류 및 부분품 전문취급점을 개설하였다.

주소: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72.

○ (주) 빙그레 대표이사에 오재덕 취임: 지난 11월 26일 제17기 주주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사장에 취임하고 이사 4명을 새로 임명하였다.

○ 미원사료 '84전국 위탁점 사업전진

대회 개최: 동사는 '83년 한 해의 사업실적을 분석 평가하는 한편 '84년도의 사료사업방향을 제시하고 회사와 위탁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22일 지난 '84 전국 위탁점 사업전진대회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임 철수사장, 임직원, 전국 위탁점 소장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축산업 발전과 미원사료 사업정책」이란 제목으로 김 인식 이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아울러 '83년 한 해동안의 판매 및 경영관리 실적이 우수한 위탁점을 선정,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84 전국 위탁점 사업전진 1983. 12. 22 서울미원주식회사



△ 미원사료 84 전국 위탁점 사업전진대회

● 최다판매부문

최우수상: A - 1 고 흥태 소장

우 수 상: A - 11 정 인영 소장

우 수 상: A - 6 이 승범 소장

● 판매신장부문

최우수상: E - 4 김 원기 소장

우 수 상: E - 1 심 충섭 소장

우 수 상: E - 3 전 주현 소장

● 사양관리지도부문

우 수 상: A - 5 김 창수 소장

● 경영관리부문

우 수 상: D - 1 고 상근 소장

● 신용관리부문

우 수 상: D - 6 최 성조 소장

축종별 최다판매 부문

산란계사료 - 장려상: A - 8 문 종태 소장

" : C - 5 박 세일 소장

육계사료 - " : A - 2 이 규봉 소장

" : C - 5 홍 승남 소장

양돈사료 - " : G - 4 윤 영원 소장

" : D - 11 이 계철 소장

축우사료 - " : B - 3 장 용호 소장

" : B - 5 최 지환 소장

○ 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윤효직) :

동학회는 지난 12월 17일 농경연 대회의실에서 식품유통 분야의 학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3 동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 5일시장의 개선방안」, 전 태갑 (전남대 교수)

• 「식육소매시장의 육성방안」, 권 원달 (충북대 교수)

• 「포전매매의 경제분석」, 고 영곤 (농협조사역)

○ 두산곡산(대표 이채언) :

지난 12월 22일 오전 9시에 창립 22주년 기념식을 두산그룹 중역진과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날 기념사에 이 채언사장은 「생산비 절감으로 사료값을 안정시켜 양축가를 보호하고 어려운 국내 축산업에 두산가족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장 포상에서는 조 돈택과장 (사료판촉과) 외 7명이 상장과 부상을 수상하였다.

○ 마니육종(대표 김영환) : 계속되는 국내 양계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12월에 대만, 인도네시아에 마니커 종계를 2만 3천수를 수출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마니육종의 연례 행사인 육용종계 경영자 세미나 및 마니커의 밤 행사가 84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그린파크호텔에서 개최된다.

브로일러 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제7회 세미나에서 발표될 주요주제는

○ 육용종계의 경영 목표.

○ 좋은 브로일러 실용계 생산을 위한 관리요점.

○ 부화장 위생관리.

○ 위생적인 병아리 생산과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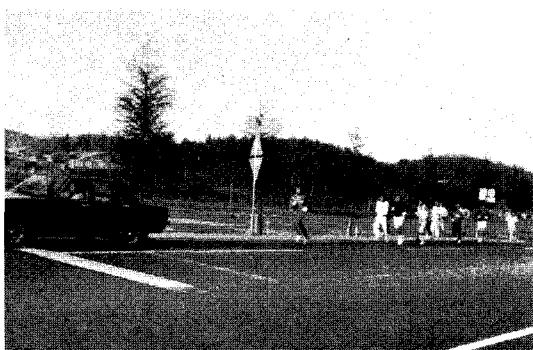
○ 종계의 일생동안의 방역, 접종 및 투약프로그램.

○ 세계 육용종계의 육종방향.

○ 통계자료에 의한 84년 양계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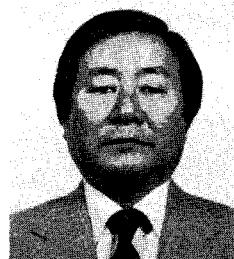
○ 진홍사료(대표 강성배) : 83년을 결산하고 84년에 들어 보다 굳센 의지력과 개인한 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4일 20km 구간 '진양가족 건강 마라톤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강성배사장을 비롯 직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박신호씨(전 매일유업 낙농이사),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취임: 새로운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월 1일부로 사무국장에 취임하였다.

서울대 농대·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종축장, 축산시험장, 농촌진흥청, 매일유업 낙농이사로 근무해 왔으며 우리나라 낙농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박신호 국장)

○ 바이엘화학 대리점 전국 4개소 신규개점: 바이엘 취급점 4개점포가 신규로 개점되었다. 양축가의 약품구입에 편의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바이엘 대리점이 새로운 문을 열게됨에 따라 지역축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신규 개점업소는 다음과 같다.

• 마석축산: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수리 292(대표: 정정숙)

• 충주가축약품상사: 충북 충주시 역전동 659-19(대표: 김완식)

• 신정가축약품상사: 전남 금성시 중앙동 22(대표: 김석순)

• 김포가축약품상사: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19(대표: 박찬용)

○ 허신행씨(농경연 농정연구실장) : 태국 방콕에서 열린 「농촌인구 이동과 농업기계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지난 12월 12일 귀국.

○ 동방유량(주) 해표사료(대표 신덕균) : 84년도 판매 신장과 원활한 업무촉진을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로 직원을 특채하였다.

(사료사업부)

한영균 대리(전 동양화학근무)

최인주(전북대 축산과 졸)

최상경(서울대 축산과 졸)

안병길(충남대 축산과 졸)

김대연(경북대 낙농과 졸)

이장영(영남대 축산과 졸)

또한 양축가들의 현의와 업무의 신속 정확을 위해서 용인 영업소에 1월 1일부로 전화를 개설하였다.

전화: 서울 763-3961

한편 동방사료(대표 신명수)는 곡물 수입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에 1차로 옥수수 5,500톤을 자체 구입하는 등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또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박주호 생산과장(전보거사료근무)을 특채하였다.

○ 이창구씨(한국바이엘 동물의학연구소장) : 지난 11월 11일 출국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의 동물약품업체를 시찰하고 12월 17일 귀국.

한편 함께 출국한 유병문 생산부장은 미국에 머물면서 기술연수를 받은 후 84년 1월 중순경 귀국할 예정.

○ 김성훈 교수(중앙대) : 로마에서 개최된 FAO 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12월 12일 귀국.

○ 김정웅씨(다다상사 대표) : 지난 12월 1일 미국, 캐나다 축산업계를 2주간 시찰하고 귀국.

○ 이기범씨(서울미원 이사) : 12월 1일부로 판매담당이사에 취임.

○ 이태리 식품공업기술 심포지움: 이태리무역관은 농수산부, 농개공 공동협찬으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이태리 식품공업기술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발표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카로니의 역사와 오늘날의 기술.
- 이태리식 아이스크림 제조법.
- 주류 가공산업과 포도주 양조기술.
- 과일을 원료로 한 저장식품과 제빵산업용 식품.
- 완제품 저장과 턴키공사.
- 제분수출 증가의 결정요인.

○ 의정부 계우회: 회원 50여명으로 의정부일대 양계업의 중추적 모임인 계우회의 84년도 신임회장에 원용주씨(삼양부화장)가 당선되었다.

○ 오리고기 보급확산: 식용오리 18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나주식품(대표 나원주)은 오리고기보급 계획을 마련, 전국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 조양축산상사(대표 김재원) : 지난 12월 17일 프라자호텔 21층에서 축산 관계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RD와 면역관계」「CRD와 트리아 폴로신」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Millet 박사와 Tien 박사(프랑스 베르박연구소) 강사로 초청되었고 통역에는 원송대(연암축전)교수가 맡았다.

○ 한국냉장(주)(대표 함만준) : 일일 3천수의 육체를 가공해 「런천·미트」 및 발달한 정육을 가미처리한 육포를 시판하고 있는데 냉동차 27대를 갖추고 위생적인 유통을 하고 있다. 한편 냉사는 식품유통구조개선과 농·수·축산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방세법개정안: 내무부는 29일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15~25·7평사이의 공동주택 등) 취득자에게 82년 5월 26일부터 주어 오던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대부분 없애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 공한지세 부과대상 면적

지금까지 용도에 관계없이 2백평 이하의 공한지는 무조건 공한지세의 과세에서 제외됐고 목장용지를 샀을 경우 축산장려책으로 공한지세를 무조건 물리지 않았으나, 세법개정 이후에는 취득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초지로 조성치 않으면 공한지세를 물린다.

공한지세의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시가표 준액의 5(보유기간 3년이내)~10%(보유기간 13년이상)씩 무는 중과세금이다.

○ 37개 농수축산물거래 단위 미터법 표준화 및 포장자재통일: 8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수축산물 표준규격제정에 앞서 우선 1단계로 내년부터 쇠지고기, 김, 마른멸치 사파, 배, 양파 등 37개 농수축산물의 거래단위를 종전 尺貫法에서 미터법으로 통일 사용한다. 쇠고기 쇠지고기의 경우 도매거래단위는 kg 소매는 g으로 통일하고 2백59g, 5백g, 1kg, 2kg, 3kg짜리 포장육을 만들어 도소매한다. 맑고기는 도소매 모두 g 및 마리로 통일. 마른멸치는 1kg짜리 봉지와 3kg짜리 부대로 도소매단위 통일. 사파, 배, 꿀, 복숭아, 포도, 토마토, 참외, 밤은 도매의 경우 15kg짜리 상자로, 오이, 호박, 딸기, 풋고추 등을 10kg짜리 상자로,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양배추 등은 20kg짜리 부대로 표준화.

○ 벼품종선택 일반계 종점: 종전 다수확 신품종에 치중했던 벼품종선택권장을 올해부터는 품질이 신품종보다 나은 일반계를 많이 심도록 권장. 하곡수매시 밀은 제외.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 경과

미국 펜실바니아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 경과에 대한 공문이 농수산부로부터 왔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90개소 중 46개소가 positive(발생)로 판명되었으며, 25개소에서 1,077,735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현재 종란에 의한 수직감염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격리지역 내의 아조, 후조 등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금 인플루엔자의 증상 및 예방대책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증상 및 전파

- 기침, 재채기, 골골거리는 소리, 눈물을 흘림, 식욕감퇴,
- 하리, 안면의 부종, 신경증상, 녹색하리변.
- 난각 탈색, 비정상란.
- 독력이 강한 경우 증상없이 갑자기 폐사.
- 후조, 야조에 의한 전염.
- 접촉, 관리인에 의한 감염.
- 전파 속도가 빠름.

2. 예방대책 및 치료

-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없음.
- 감염체는 소각 또는 매몰.
- 철새, 들새의 양계장 침입 방지.
- 수입시 검역 철저.
- 출입자의 통제.
- 유행 바이러스의 항원과 백신제조 바이러스의 항원이 동일한 경우 백신에 의한 예방 가능.